

3년 과정 필답-국어

■ 가톨릭대학교

난이도 중 정도

■ 건국대학교

난이도는 평이한 편이지만 문제 수가 많아 시간 관리 연습이 필요하다. 문법 문제가 많다.

영어 시험-> 쉬는 시간->국어 시험 순으로 진행됨.

문제 많음. 전년도 기출(문제 수가 많아서 시간 배분 잘하기), 시간 안배 필수

문법은 작년보다 쉬웠고 문학은 낯선 작품이 나왔다. ->문법 문제가 많아짐. 실수하지 말아야 함.

시간 안에 지문 다 읽고 푸는 연습하기.

독해 능력/어휘 능력 키우면 된다. 물론 문법도 필요.

총 문항 수가 100개라서 문제 풀다 정신 나감. (멘탈 끝까지 붙잡아야 함.)

문법 은근 까다로운 문제 많이 나옴.

■ 경희대학교

까다로운 문법 문제가 많았다. 시험을 보기 전 문법을 완벽히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영어 시험 먼저, 국어 시험 전에 쉬는 시간이 있었다.

작년 시험 유형과 비슷. 괜찮은 시험. 비문학 위주는 아님. 그냥 문법, 비문학, 문학등 다방면에서 골고루 나옴.

2019학년도 시험과 비슷. 문학, 문법, 비문학, 골고루 나옴. 비문학 지문 나옴(경제 지문)

전년도 기출 많이 풀기-국어, 영어 모두 난이도가 높음.

작년처럼 난이도 평이. (여러 학생의 입시 후기로 난이도에 있어 편차가 있음.)

남한산성이 나옴(빈칸 채우는 문제 + 인물 특징 옳은 것 고르시오.+ 윤동주 아우의 인상화. 작년과 비슷한 수준임.

17.18.19학년도 입시 문제 1번 문항과 다르게 나옴.

비문학이 생각보다 어려웠음=>접해보지 못한 주제들로 당황함. 예를 들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상관관계 문학은 내신을 챙겨서 암기를 했다면 바로 답이 보일 만큼 뻔했음. (혹은 열심히 공부했다면)

문법 문제가 까다로웠음. 1번 문제부터 표준국어 조항(?)과 그에 부합하는 단어를 연결하라고 함. 예를 들어 구개음화의 정의 - 굳이 (연결시키는 문제)

어떤 문제에서는 문장을 주고 관형어를 찾는 문제가 나왔는데 보기가 5개,6개,7개,8개 보기라서 하나라도 잘못 찾으면 실수하기 쉬웠음.

-> 종합적으로 다른 년도보다 문제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졌음. 시간 분배 열심히 할 것.

■ 국민대학교

다른 년도에 비해 문제가 어려웠음

문법을 암기해도 정확히 정의를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음.

예를 들이 피동 사동, 중세 국어 -> 어떤 글자가 어떤 시기에 사라졌는지... 비문학은 어렵지 않았고 문학도 조금 까다로운 문제 빼고는 수월하게 풀 수 있었다.

쉬운 편도 어려운 편도 아니고 중난이도

문법 문학 비문학 다 골고루 나옴. 생각보다 헛갈린 문제 많음.

난이도 4 ~4.5.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 어려웠음.

문법 생각 의외로 많았음. 철저히 공부해야 함. 1문제 모르는 순간 시간만 날리는 셈임. 시간 배분 잘해야 함.
국어 문법 열심히 해라. 후회한다. 절대로 문제 푸는 걸 운에 맡기지 말고 머릿속에 다 넣고 시험치러 가라.
작품 공부 골고루 많이 해라

■ 단국대학교

그냥 이상한 문제 많아 풀다가 당황스러운 문제 나오면 침착하게 잘 찍도록. 난이도는 쉽지만 이상한 문제 있음. 난이도 하.

영어가 쉽다고 국어까지 만만하게 보면 안됨

상식선에서 벗어난 문제가 나옴. 예를 들어 1번문제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1. 심지어 2. 하물며 3. 도리어 4. 차라리. 5....

문법이 어려움. 이상한 문제가 나옴.-문학 몇년도것 인지...

국어는 낫선 형식의 문제들..... 암기 형식 다수 난이도 어렵지 않음.

국어 개 어려움.

고전 많이 나옴.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옴.

■ 동국대학교

문법 문제 수를 줄여서 이번 년도에도 줄일 줄 알았으나 뜬금없이 5문제가 나옴. 그러나 모든 문제마다 그에 따른 정의를 설명하고 문제를 줌.

수능형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문학 역시 암기를 했다면 바로 풀 수 있었음. ->학교에서 배웠던 문학 작품들에서 나옴.

예를 들어 > 날개 중 나와 아내는 절름발이(빈칸에 알맞은 단어 나와 아내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

전체적인 난이도는 평이한 편이다. 문학,비문학,문법 모두 골고루 출제된다.

국어 영어 시험지 같이 나누어 준다.

문법 못해도 됨. 그 대신 문학공부 열심히 해야 함. 고전도...시대순 문제 하수준 20년도 문법문제 전보다 많아짐.
근데 엄청나게 쉬움.

학교에서 배운 문학 작품이 대부분이었음.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세요.

문학 20문제, 문법 5문제

수능 특강 많이 나옴. (비교적 쉬워서 실수 하지 않도록)

고전문학 작품이 나왔다. -춘향전,제망매가,문법 많아짐.

갑자기 문법 문제 나오더라. 당황했다. 이제 동국대도 문법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난이도는 어렵진 않다.(쉽다.)

동국대는 시간 나름 널널한 편이다./ 실수하지 않는 것이 관건.

25문제 모두 어려움. 국어의 난이도는 평이함.

수능 형식이 대부분. 국어는 쉬움.

따라서 문학 : 내신 기간에도 열심히 할 것.

작가별로 정리해서 기억할 것

문법 : 노트를 만들어서 헛갈리는 주요 단어나 정의 외우기

순서대로 정리해서 외우면 문제 풀기 편함. 예를 들어 ①음운의 변동 ② 품사 ③ ④
비문학 : 책 많이 읽기. 시간 분배 열심히 하기. 꾸준히 풀기

■ 숙명여자대학교

국어 영어 둘다 쉬운 난이도는 아님. 문법 문학 다 탄탄해야함. 상수준
비문학 지문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충분히 이해했다면 문제풀이는 복잡하지 않다. 고대,중세국어 관련 문법 문법 문
제가 출제되었다. 국어시험->쉬는 시간->영어시험
문법 꽤 많이 나옴. 고전문학 많이 나오고 겹핥기 식으로 공부하면 망함. 진짜 세세하게 물어봄. 가족호칭어, 지칭
어, 옛날꺼...
비문학 순서배열-헷갈리게 2020년도엔 고전 동동 나옴.
문법 문제 수가 많고 넓은 범위에서 개념 묻는 문제가 나옴.
미문학문제+동동,상춘곡,소학인해....
어렵고, 문제도 많음
문법 어려움..

■ 송실대학교

문법 문제가 어려움.

■ 이화여자대학교

논술반영 비율 각 과목당 25%이므로
논술보다는 문제풀이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에세이 아무리 잘 써도 문제 많이 틀리면 에세이는 봐주지도 않
는다.
문학,비문학,문법 문제가 골고루 나오며 100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영어와 국어 각각 10문제 + 논술을 (국어 영어
시험지 + 논술 답지 모두 한번에 나누어 준다)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 연습이 중요하다.

■ 인하대학교

작년 시험 유형과 대체로 비슷. 그렇다고 문법, 단어 공부 안하면 망함.
국어의 난이도가 어려움.
[적벽가]의 내용이 많이 나왔음.
문법이 수능형으로 나온 문제들이 있었음.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어 표기법,맞춤법 관련 문법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공무원 국어시험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국어 시험->쉬는
시간->영어 시험.
35문제 모두 난이도 적당. 문제가 많고 어려움.
시간 잘 써라.

어떻게든 주어진 시간안에 문제 다 푸는 연습해라.
나때는 말이다..... 국어문법 열심히 했었다.

■ 한양대학교

문법 5~6개 (외래어 표기법, 화법과 작문 문제 3개 정도 많아요)

비문학 지문 3-4개정도로 많고 어려움.

문학-소설1개, 수필1개 난이도 상, 시1개(김수영-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난이도 중. 시간 충분함.

난이도-적당함 아니 조금 어려움. 2019년도와 비슷한 수준 혹은 조금 더 어려운 듯함. 시간은 다 풀고 마킹하니까 2분정도 여유있음.

■ 한양대학교 에리카

독해 능력 뛰어나야 함. 사자성어도 잘 외워둘 것. 쉬운편 아님

국어만 보는 학교. 준비한 만큼 안 어려웠음. 대부분 문제가 비문학임(글 읽기 잘해야함.), 비문학독해만 28문제. 평
이했다.맨앞 평이한 문제 2문제..

'시'제목 물어봄-답:춘절

1번 문제가 단모음 단어 순서 배열,표준어 찾기, 문학 소설-봄봄/비문학 2개, 문법4문제, 소설1개
20분에 풀 정도로 쉬움.

수능특강 비문학 풀어보기. 전년도 기출 풀기(독해 능력이 필수)

올 비문학인데 문법 은근 까다로운 것 몇 문제 나옴. . 시제목 나옴. . 사자성어, 속담 나옴.

선배가 주는 국어 꿀팁-난 항상 문제풀 때 시간이 많이 남는 스타일이 아님. 그래도 가서는 어느 정도 긴장을 해서
그런지 빨리 풀림. 시간이 많이 부족한 친구들은 연습할 때 그 시간안에만 푼다 생각하고 풀다보면 시험장에서선 시간
부족하지 않을 것임. 국어는 성적 올리기 영어보다는 쉬운 편. 문법은 완벽하게 2~3번 훑고 기출문제 풀면서 헛갈린
것들 정리하고 심심할 때 외래어 표기법 그냥 보기만 해도 됨. 마음잡고 외우려고 하는 것 보다 계속 보다 보면 눈
에 익음. 문학은 그날 학원에서 배운 것만이라도 완벽하게 머리에 넣자. 제목 주제 대충 무슨 스토리였는지라도 기
억해라. 친구가 국어문법을 포기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후회하더라. 후배들아 파이팅

국어문법 공부하다보면 맞춤법 틀린거 눈에 거슬린다. 그렇게 될 때까지 열심히 해라.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한국 가서 학원은 너네가 알아서 해라. 거기가 거기다. 학원 하루 다녀보고 알아서 결정하도록

지필 국어 꿀팁/ 뼈저리게 후회한다.

경험자가 주는 -> 대학교 불문하고 국어문법 확실하게 안잡으면 뼈저리게 후회한다. 무조건 다 맞힐 수 있도록 무조
건 다 외워라. 그리고 문학작품 배우면 복습 바로바로 해라. 그래야 기억에 잘 남는다. 사자성어는 틈날 때 마다 외
워라. <네이버퀴즈>이용해라. <띄어쓰기 능력고사>다운 받아서 게임처럼 해라 . 도움 많이 된다.

한국 가서 학원 다니지 말고 혼자 정리할 것. => 독서실 다니면서 정리.

3년 과정 필답-영어

영어 후기 모음 -best 영어책 읽기. 제발 단어 단어만 외우면 대학간다.

■ 국민대학교

3번 정도 전체 문제를 훑을 수 있었음. 2개 헛갈리는 단어 나옴. 당황했음.

리딩 지문의 수준은 평이. 문법도 -> 제목을 찾는 문제가 그 문제의 단어를 완벽히 모르면 헛갈릴 듯.

기본에 충실하면 될 것 같은 시험. ->워드스마트 암기, 반복적인 리딩문제 풀기

원래 국민대보다 조금 난이도 있었음. 이유는 중간중간의 단어들 암기를 요했음. 예를 들어 cutting-edge 독해는 평소와 비슷하게 나옴.

다른 학교에 비해 문제수도 난이도도 평이한 학교로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나 Reading Section을 단시간 안에 빠르게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단어는 WORD SMART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READING에 주력하여 공부할 것을 권고....

작년과 비슷한 난이도.

단어 이상한 거 나옴. 워드스마트에도 나오지 않았던 단어임. 단어말고는 평이함.

어렵진 않았다. 그렇지만 헛갈리는 문제가 있었음. 단어를 외워라.

■ 건국대학교

수학 또는 국어 시험이랑 시간 분배 잘하고. 단어 외우기

생각보다 쉽진 않음.

쉽게 풀었으나 정답을 보니 ????? 하는 문제가 많았음.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다.

문법 문제가 많아진 것 같다.

작년의 기출 경향을 따르지 않은 듯. 매년 새롭다. 단어는 쉬움. 완전 기본....

문제수가 많은 만큼이나 난이도는 다른 대학에 비해 쉬운 편이나 그만큼 기본기가 튼튼하지 못하면 시간내에 풀어나가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건국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어려운 단어를 많이 공부하려고 한다가 보다는 기본

기에 충실하는 것을 더욱 추천. 문법 역시 어려운 것보단 기본기를 유지하는 정도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

50문제라 부담이 조금 되지만 전체적인 난이도는 쉬운편. 시간 분배가 힘들었음. 시간을 분배하는 연습을 해야함.

영어가 점점 쉬워지고 있는 추세다. 실수만 안 하면 만점도 가능한 난이도

(단어수준 : exciting , excellent....)

영어를 정확히 빨리 풀면 유리함. 난이도는 비슷함. 맞힐 수 있는 문제 맞아야 하고 틀릴 문제 틀리면 된다.

최대 5개 틀려도 최조합(?). 고루 고루 공부하면 된다. 전반적인 영어 실력이 높아야 한다.

■ 경희대학교.

쉬웠다. 첫 번째 장을 보는 순간 내가 지금 경희대 시험을 보고 있나 의심이 들 정도를 상상해 봄. 이정도로 쉬웠다. 나는 15분에 다 풀고 4번 풀었더니 최조합을 했다.

이번 년도는 난이도가 쉬운 편이었다. 단어도 무난한 수준이고 독해 쉬운 편.

시간도 널널했음. 지금까지의 경희대 기출문제 풀어보는 것도 도움 될 것 같음.

작년에 비해 쉬운편이었음. 단어가 어려운 학교지만 올해는 매우 쉬운편이었음.(워드스마트정 도 난이도도 안됨.)

작년과 비슷 또는 더 쉬운 난이도

올해 단어는 한번씩 본 적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 단어 암기가 중요. 영어가 끝난 후 쉬는 시간이 있지만 독해 지문 개수가 꽤 많아서 시간 분배 연습 중요.

단어, 문법, 많이 알고 있기.

영어가 진짜 쉬워졌다. 단어 난이도도 완전 낮아지고 리딩, 문법도 진짜 쉽다. 애간해서 1,2개 틀릴정도? 다 맞거나?

하여튼 진짜 쉬워졌다. (단어수준 : mundane skeptical 이런거 나옴.)

점점 쉬워지는 중 열심히만 하면 최조합 가능. 쉬운데 2019보다는 난이도가 살짝 올라감.

시험이 쉬웠고, 수능 특강 지문 많이 나옴.

평년도 보다 쉬웠다. 수능 특강의 영어 1문제가 나왔다. 영어는 쉬워졌다. 특히 단어 난이도가 내려감.

■ 단국대

영어 매우 쉬웠음. 5지선다로 바뀜. 마킹을 볼펜으로 해서 시간 소요가 더 많았다.

학교에서 배우는 기본 단어들 충실히 암기 필수 (유의어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음)

리딩도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평소 정확한 해석 연습 필요.

문제의 수가 적어지고 어렵지 않고 순서배열 문제도 있었음. 다양하게 나옴. 독해가 짧아서 좋았음.

■ 동국대.

25문제 모두 단어, 문법, 선택으로 구성. 독해가 없음. 난이도 중. sentence compliment 연습을 많이 하면 좋겠다. 평소보다 많이 어려웠음.

내용일치 T/F 문제보다 전체적인 문맥 흐름을 요하는 문제가 평소보다 많았음. 독해는 수능특강에서 가져옴. 기억나는 지문은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지문과 며칠동안 노력해야 습관을 만들 수 있는지 -> 문장에 빈칸을 두어 단어는 많이 어렵지 않았음.

이전의 기출문제의 난이도보다 훨씬 어려워짐. 수능 형식의 (수능 특강)문제가 많이 나옴.

=> 수능 특강을 꼭 풀어보고 문제의 유형 또는 빨리 읽고 정확한 해석, 문맥 이해를 연습하는게 좋을 듯함.

예상하지 못한 단어들 나오긴 하지만 기본기가 탄탄하면 충분히 풀 수 있다.

속어 나눔/단어 어휘 워드스마트와 연관 없이 더 어려움.

수능특강 지문 똑같은거 많이 나옴. 작년보다 어려워짐. 빈칸 pair (짝 찾기 문제)

수능특강에서 많이 나옴. 20문제중 11문제정도 나옴.

영어 문제수 많지 않았고 작년보다 조금 어려웠음. 단어 많이 외워야함. 문제 배점 높고 수능특강 한 권 다 외우면 1차 붙음..... 문법이 예년과 비슷. 리딩이 쉬움

■ 세종대

단어 무조건 많이 외우기

■ 숙명여자대학교

어휘가 변별력

작년보다 100배 정도 어려움. 너무 어려웠음. 지문도 어려움.(이해가 어려울 정도) 보고 올 뻔했음. 환경 동물에 관한.....

항상 호락호락하지 않은 시험. 단어 독해 문법 다 잘 해야됨

■ 숭실대

독해부분의 지문이 다소 길어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문법은 다소 간단한 편.

■ 아주대

페이지 수가 상당히 많았음. 뒤쪽으로 갈수록 비교적 쉬워짐.

■ 이화여자 대학교

리딩 15문제. 문법 없음 -> 아카데미 주말고사 정도 + 단어

단어 수준높음(sat 정도!!) 워드스마트는 많이 안 나왔다.

문제 유형 살짝 바뀐 (단어)

->빈칸에 넣는 단어 고르기 ->밑줄친 단어의 syn 고르기

에세이 주제도 작년보다 어려워 짐. ->동성애 찬반 -> 한사람의 입장을 읽고 그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 작성

난이도 높음. 에세이랑 문제 풀기 시간 분배 잘해야 함.

단어 어려움. 독해 지문 난이도도 높은 편. 에세이 보다는 문제를 더 잘 풀어야 승산 있을 것 같음. 지필대학 중 가장 어려운 편에 속함.

단어도 어려운 거 위주로 많이 외우고 문제 빨리 푸는 연습해야 할 것 같음. 에세이는 학원 다니는 것보다는 주제에 맞는 글쓰기 연습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임.

어렵다. 그냥 겁나(완전) 어렵다.

에세이도 어렵다.

그냥 영어공부 많이 하고 봐야한다. 다시 말하지만 어렵다. 진짜 어렵다.

작년보다 훨씬 어려움. 시간도 작년보다 부족함. 워드 스마트 단어 외에도 난생 처음 보는 단어들 많았음. 지문도

내용이 난해함. 에세이 주제는 너무 평이해서 오히려 변별력이 없을 듯함.

■ 인하대

statement 나열하는 문제가 까다로웠다. 다른 것을 비교적 쉬웠다. 20문제 모두 독해여서 집중력이 매우 중요했음.

지문의 난이도는 높은 편이 아니었음.

답이 애매하다고 느껴지지만 잘 읽으면 답을 찾을수 있는 난이도였음. (꼼꼼히 읽는 연습)

작년보다 쉽고 타 대학보다 훨씬 쉬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

문제 유형이 수능특강이랑 똑 같아짐. -쉬움.

리딩 100% 순서 배열 문제 많음. 예년의 기출문제와 비슷한 유형임.

■ 한국외대

50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촉박함. 난이도 상. 한국외대의 전형적인 기출문제 유형을 많이 풀어보고 복습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다.

난이도 보통. 지문이 길었던 것 같음 순서배열 무제 시간 꽤 걸림.

영어가 많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올해도 어려움.

S,C가 쉽게 나온 편이다. s,c을 공부함에 있어 문장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key word에 주력하실 것을 권고. 문법은 다른 학교에 비해 굉장히 수준 높은 편. 만약 외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문법을 꼼꼼히 공부해야만 합니다.

1~20 : 단어시험 (문장 빈칸 알맞은 단어 넣기) + 문법(어려움)

21~40(?) : 리딩(적당히 어려움.)

문법이 예년과 비슷, 리딩이 좀 쉬워짐. 문제유형이 예년과 비슷. 너무 어려움. 시간내에 푸는 것조차 힘들. 외국에서 영어를 공부해 빠른 독해를 할 줄 아는 사람에게 유리한 시험.

■ 홍익대

작년보다 어렵지만 타 대학보단 훨씬 쉬움.

EBS 교재에서 풀었던 지문 형식으로 많이 나옴. 단어 위주보다는 속어가 많이 나옴.

독해 많음. 구성(단어,속어로 빈칸 본문의 흐름상 어색 찾기)

3년 과정 필답-수학

작년보다 대부분 난이도가 올라감. 침착함이 필요함. 떨지 말아라. 실수 안하는 것이 제일 중요. 실수만 안하면 붙음.

2020년 재외국민 난이도 경희대<아주대<건국대<<<<<이대 < 한양대 에리카 <한양대

■ 건국대학교

시간분배 잘하기. 2시간에 영어/수학 같이 풀다 보면 시간 분배 잘 안됨.

2019년 입시보다 난이도가 어려움.

평년 건대보다 난이도가 올라 당황한 학생들이 많아 실수가 잦았음. 문제를 잘 읽어야 하는 문제가 많았음
너무 어려웠다. 기출문제는 풀지 않을 것을 추천한다. 관련이 없으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그 시간에 정석 한
문제라도 더 풀 것.

2019년 입시보다 난이도 올라감. 한문제가 어려웠음.

기출문제들이 쓰잘데기 없었다. 완전 달랐다.

작년/재작년에 비해 훨씬 어려움. 20점 문제사이에서도 까다로운 문제가 많았고 30점도 어려움. 기출보다는 썬과 같
은 문제은행문제집 풀기를 추천함. 만약 수의대를 지원한다면 실수안하는 것이 제일 중요. 1문제로 불합격이 갈림.
(수의예)

■ 경희대학교

문제 유형들이 많았음. 유형문제만 파악해서 푸는 건 아무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

문제수준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쉬웠음. 난이도 있는 문제가 많았으나, 개념을 꼼꼼이 알아야 하는 문제가 여러 있
었음. 수학은 여러 가지 문제를 두루 풀어보아야 잘 풀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

정말 기본적인 문제들 뿐이다. 정말 쉽다.

작년보다 훨 쉬웠음. 다풀고 30분정도 남음.

2019년 입시보다 어려워졌다.(?)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

할만 했다.

기출문제와의 난이도는 별반 차이가 없으며 실수를 절대 하지 말아야...수학은 매우 쉬웠으며 실수를 하지 않는데에
중점을 두어야

점점 수학이 쉬워지고 있음. 실수만 안 하면 만점도 가능. 매년 나오는 부분이 비슷비슷하므로 기출 한번씩 꼭 풀고
유형별로 문제풀기 추천.

영어가 쉬워지고 있다. => 수학교공부 많이 하세요.

■ 국민대학교

매우 쉬웠음. 학교 시험보다 쉬웠음. 쉬웠다.

국민대 원래 수준으로 나옴. 너무 쉬워서 변별력이 없을 것 같을 정도였다.

기본에 충실하면 됨.

■ 동국대학교

유형 문제만 파악해서 푸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

문제를 여러 방법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

■ 단국대학교

작년보다 훨씬 어려웠음.

문제의 앞 부분들이 쉬웠지만 뒤페이지의 4문제 정도가 어려웠음.

3문제가 어려웠다.

■ 대전대학교

난이도 매우 쉽지는 않았음. 확통 문제들이 기억에 많이 남음. 많은 부분이 확통 문제인 듯

■ 아주대학교

대부분 예전 문제에서 조금 변형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다. 단, 새로운 형식의 문제도 있을수 있음. 미적분 문제가 많으니 미적분을 많이 공부해야 된다.

난이도는 높지는 않으나 공부 안하면 문제를 풀지 못할 것이다.

작년 문제와 상당히 유사함. 난이도는 조금 up 된 듯

확통 2-3문제 나옴. 쉬웠다. 매우 평이 하였음.

기출 문제와 매우 유사함게 나옴. 평이함.

전년도 시험과 많이 유사. 작년 기출을 중심으로 풀자

그냥 정말 쉽다. 2019년 입시와 유형이 거의 똑같았음. 문제 쉬움.

몇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작년과 비슷하게 나왔다.

평이했다. 작년이랑 난이도,유형 비슷 작년 재작년 기출 한번씩 풀고 미적2도 난이도가 쉽다. 그냥 교과서 정도 풀고 다른 지필대학 준비하면 될 듯.

■ 이화여자대학교

시간분배 중요. 작년 시험보다 3배 정도는 어려웠다.-그냥 엄청 어려웠음

새로 보는 문제 유형이 많이 나왔다. 기출문제가 별 도움이 되지 않았음.

2019학년도 보다 더 어려움. 10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음.

에세이, 영어, 수학 보려면 시간분배 잘 해도 난이도가 어려워 의미 없었음.

진짜 진짜 어려웠음. 20문제에서 내 실력으로 풀 문제가 반정도 되는 것 같다. 거의 찍기 문제. 만약 난이도가 이정도 이어간다면 센c단계, 일품, 블랙라벨 정도 문제집 풀기 추천(+너무 너무 어려웠다.)

■ 인하대학교

20문제 중 마지막 한페이지(4문제)가 어려움.

올해 시험이 전년도 시험들 보다 난이도가 있었음. 특히 미2

2019년보다 난이도가 어려움.

앞부분의 문제는 매우 수월했으나 뒤쪽의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난이도가 높음. 평소 인하대 20번보다 어렵게 출제 됨.

마지막 문제 상당히 어렵게 출제됨. 멘탈 붕괴.

마지막 3문제만 좀 어렵고 나머지는 기본. 이번에도 3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었음.

쉬운데 마지막 2개가 계산이 굉장이 까다로움.

몇몇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어렵지 않았으나 몇 개가 극히 어려워 주의해야 할 것 같다.

2-3문제가 어려웠다.

절대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되는 대학

마지막 5문제에서 합격여부가 판결이 나도 무방. 마지막 5문제는 창의력과 끈기를 요구하는 문제였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았지만 15문제는 20분안에 풀고 남은 시간에 5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한다.

■ 한양대학교

수학 많이 공부하세요. 기백x

열심히 하면

쎄, 일품 문제집등을 풀어보세요. 수학은 어려워짐. 엄청 어려운 문항 2개 있음.

2019년 입시보다 수학 난이도가 훨씬어려웠음.

2019년 대학모의고사 잘 봤는데 모의고사 성적 의미가 없었음. 특히 서술형은 시간이 촉박했으며 문제와 숫자가 딱 떨어지지 않고 매우 지저분함.

전통적으로 까다로움.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다. 풀이를 정리하면서 푸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또한 풀 수 없다거나 계산이 꼬이면 그냥 건너 뛰어라. 3-4개 정도는 괜찮다. 전략을 잘 짜라.

침착함이 필요. 처음 문제를 보면 풀만 하다고 느낄 것이지만 절대 아니다. 정말 계산이 더럽고 어렵다. 기본 개념은 기본이고 어려운 응용문제가 필요.

수학문제를 질리도록 풀고 또 풀고 계속 풀어라. 시험보면 시간이 무조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푸는 것에 적응해야 한다. 어려운 문제는 빠르게 넘기고 마무리 해라.

많이 어렵다. 개극혐이란 말이 나올 정도...

작년 기출들과 난이도를 비교해보았을 때, 난이도는 별로 변동이 없었다. 다만, 시험칠 때 느끼는 긴장감이 평소와 매우 다름. 계산이 까다로운게 매우 많으며 1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압박감이 매우 세다. 한양대를 지원하고자 하면 문제를 보자마자 풀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 한양대학교 에리카

생각보다 어렵고 특히 계산이 매우 복잡함.

2020학년도 역대급으로 어려웠다.

역대급이다. 에리카라고는 믿을수 없을 정도의 난이도 였다.

■ 항공대학교

75분 30문제였는데 10문제는 수학1, 10문제가 수학2, 5문제 미적분1, 5문제는 확통 수1이 약한 학생은 당황할수 있음.

난이도는 전년도와 비슷하고 시간이 많이 촉박/부족함.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할 만했다./시간분배를 잘해야 한다.

■ 홍익대학교

전반적으로 쉬웠음. 마지막 한 문제가 어려웠음.

2019년 입시보다 난이도가 어려움. 그러나 타 대학보다 쉬움.